2022 KWMC BAM분과 1강

**성경과 역사에 기초한 BAM이해** (김동건 선교사)

1. 성경에 나타난 BAM

1) 성경은 성도들의 이야기 - 대한성서공회의 성경인명사전 총 1,888명 / 한국컴퓨터 선교회 1,897명 / ‘성경계보’의 저자 신오진 - 2,197명, 한 인물이 두 이름을 가진 것까지 합하면 2,618명.

2) 구약성도들의 다양한 직업들 - 하나님(창조, 복을 베품, 먹거리 주심), 남자와 여자(생육, 정복, 다스림, 이름붙이기), 뱀(꾀이기), 아벨(양치는 목자), 가인(밭을 가는 농부), 야발(집짐승을 침), 유발(수금을 타고 퉁소를 붐), 씰라(대장장이), 노아(방주만들기, 동물원장, 포도밭), 니므롯(힘이 쎈 사냥꾼), 아브람(목축, 사병양성), 리브가(집안일, 안주인), 이삭(우물파기, 목축), 야곱(목자), 요셉(노예, 가정총무, 교도관, 꿈해몽, 총리, 창고물류, 곡물유통), 모세(학생, 목자, 독립운동가, 가이드, 볍률가, 건축설계), 아론(대변인), 이드로(행정가), 제사장(제사집례, 보건위생), 여호수아(정치가, 군인), 사무엘(사사), 사울(왕), 다윗(목동, 군인, 왕), 느헤미아(왕의 술관원, 총독), 에스더(왕비), 모르드개(궁궐의 직원), 욥(재벌)

3) 신약성도들의 다양한 직업들 - 요셉(목수), 안나(여선지자), 삭개오(세리장),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공회의원), 고넬료(백부장), 바나바(지주), 누가(의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천막제조), 루디아(자주장사), 에라스도(재무담당자), 제자들(어부, 열심당원, 세리, 무직 등), 빌레몬(부자, 평신도 지도자)

2. 교회사에 나타난 BAM

1)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 초대교회(33-100년)는 모두가 복음의 증인들로서 무명의 증인들의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 모든 땅에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한’ 이들은 평신도. 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였다. 평신도들이 가정과 시장과 거리 구석에서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일하며 자급하는 텐트 메이커들도 사용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서혜덕, 한국교회 비즈니스 선교 모델의 분석과 적용).

2) 중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 사비에르(Francis Xavier, 1056-1552년)는 직업을 가진 BAM 선교사였다. 일본에 간 예수회(the Society of Jesus) 선교사들은 비단장사를 해서 그들의 선교 활동 자금을 조달하였다. 또한 미개척 대륙의 스페인 식민지에 간 로마 천주교회 선교단체는 그들의 생활을 위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였다. 예수회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의 선교팀은 수학자, 천문학자 그리고 지도 제작자, 여러 가지 고증학의 전문인으로서 놀랄 만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삶에서 BAM 선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복음만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개발한 천문학 기술과 수리학(numerology) 등의 기술을 같이 전해주고 싶어 하였다. 그들은 서양학문을 중국에 소개했으며, 지도층 인사들과 교류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큰 기독교 공동체가 중국에 형성되었다(서혜덕).

3) 종교개혁 성도들의 이야기 - 모라비안 선교회는 1732년 8월 서인도 제도에 최초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다. 한 사람은 목수이고 한 사람은 옹기장이였다. 1735년에는 그린란드와 수리남, 1737년에는 아프리카, 1740년에는 아메리카 인디언과 실론, 1742년에는 중국, 1747년에는 페르시아, 1754년에는 자메이카, 1756년에는 안티구아(Antigua)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다. 1760년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28년 동안 모라비안 교회는 226명의 선교사를 배출했다. 진젠도르프 사후에도 모라비안 공동체는 서인도제도에서 2백년에 걸쳐 3천명의 선교사를 지원하였다. 모라비안들의 선교적 영향력은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운동을 했다. 저들은 1727년부터 24명으로 구성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남여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자정부터 한 팀이 한 시간씩 24 시간 연도(連禱)를 시작했다. 이 기도가 그로부터 백년 이상 지속되었다. 둘째는 성육신적 선교를 했다.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노예로 팔려갈 것을 결정하고 그들 속에 들어가 살면서 복음을 전했다. 셋째는 철저한 훈련과 준비였다. 공동체 생활 통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디든 가기 위해 영적훈련을 받았다. 또한 생존을 위한 실제적인 생활 준비를 하였다. 넷째는 평신도 중심의 자비량 선교를 했다.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여 누구에게도 지원을 받지 않았다. 모라비안 중에는 기술공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자립하기 위해서였다. 다섯째는 전투적인 선교였다. 모라비안들은 본국에 있는 신자와 선교사의 비율이 12:1일 정도로 대단하였다. 저들은 선교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4) 근대교회사의 성도들 이야기 - 바젤선교회는 선교사들에게 신학교육과 함께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바젤선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대부분 직업인들로 오늘날의 BAM 선교사라고 볼 수 있다. 1834년 최초의 인도 선교사들은 방갈로에 도착 즉시 직업전선에 뛰어 들었다. 또한 회심자들에게 주거를 마련해주었고, 일상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 당시 인도에서 회심하는 순간부터 카스트에서 추방되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재산과 생계조차 끊어졌다. 이들을 위하여 바젤선교회의 BAM선교사들은 세례 받은 기독교인들과 새신자들이 선교지 땅을 경작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었다. 유럽의 직조공 존 할러(John Haller)는 1851년 인도로 파송 받았다. 2년이 채 되기 전에 그는 20대가 넘는 직조기를 확보하고 27명의 고용인을 두었다. 빛이 바래지 않는 염료를 개발하고자 애쓰던 중에 세메칼퍼스 나무(the semecarpustree) 수액으로부터 현지말로 ‘카키’(땅색)라는 염료를 추출해 내어 인도 주둔 영국군인들의 군복 색깔을 바꾸는데 공헌하였다. 이로 인해 공장 노무자들은 윤택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노동자 신용조합과 의료보험에도 가입하였다. 기독교 기업체인 이 공장에서는 매일 예배를 드리며 신앙을 키워나갔다. 또한 바젤선교회는 가나의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무역회사를 설립하였다. 선교회원이었던 스위스의 농부 세 명이 이 나라에 처음으로 남미가 원산지였던 코코아나무를 들여갔다. 그리고 1891년에 바젤선교회에 의해서 코코아가 가나에서 유럽으로 처음 수출되었다. 이로부터 25년이 지난 뒤에 가나는 세계의 주도적인 코코아 생산국이 되어 아프리카 흑인 국가 중에서 GN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바젤선교회는 선교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들에서는 우선 그 사무직원들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역부를 설치하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이 선교회는 성직자만 영적인 일을 하는 유일한 직분이 아니라는 원칙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어느 분야에서 하든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바젤 무역회사는 항상 시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양질의 크리스천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힘써왔다. 그들은 자기 등불을 발아래 두지 않았다. 그들은 공장 안에서 그리고 가게의 계산대 너머로 복음의 산 증인의 빛을 비추기 위해 그들의 등불을 등경 위에 높이 두었다.”고 평가받는다. 저개발국가에 들어가 경제를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현지 기독교인들을 통해 비기독교인들에게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사업체를 통해 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였다. 활발한 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선교사역을 뒷받침하였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현지인들에게 언행일치로 복음을 전하는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서혜덕).

5) 한국교회사의 성도들 이야기 - 한국에서 1961년 시작된 UBF는 초기부터 세계선교를 강조했다. UBF는 1969년 세 명의 간호사 선교사 서인경, 이 화자 그리고 설동란을 독일에 파송하였다. 1970년대 독일에 간호선교사, 북미지역에 미싱공 선교사를 보내었고, 1991년 소련의 몰락과 함께 러시아와 동구권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2010년 기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발표한 선교사 파송 기준으로 82개국에 1718명의 선교사를 파송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대학선교협의회의 선교사 수를 제외한 것으로, 국제대학선교협의회의 선교사 숫자와 합하면 2,350명으로 전체 대한민국에 파송하는 선교사중 약 10%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것이다. UBF 선교의 특징은 자비량선교이다. 자비량 선교란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과 같이 해외에서 물질 자립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해외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다. 자비량 선교로 인해 UBF는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였으며, 모교회의 지원 없이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안정적인 선교활동을 하는 기틀을 놓을 수 있었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는 1449명이고, 그 자녀들은 1272명이다. 현지의 리더는 680명, 그들의 자녀는 293명이고, 현지인들이 다시 선교사로 파송된 자도 36명이 있다(나무위키).

3. 타종교에 나타난 BAM

1) 불교 BAM 이야기

(1)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 불교학과 경영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학의 협동과정으로, 특히 불교학에서는 교학이나 사학적 교양보다 참여불교학적 인식이 요구된다. 불교 비즈니스로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생산과 분배의 경영적 문제는 융합ㆍ소통ㆍ접속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현상과 혁신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계획된 지출과 소비, 현실의 유지와 운영, 미래를 위한 대비와 설계 등과 더불어 불교사상에 입각한 이윤 창출은 현실고 해결을 통한 사회적 실천이라는 불교이념인 자리이타(自利利他,Self-benefit with Bringing Benefit to Others)에 바탕을 둔다.

(2) 용대향토기업은 백담사∼마을 간 버스를 운행하는 업체다. 1996년 버스 1대로 시작한 것이 10대로 늘어났으며, 2013년 매출은 16억원으로 마을기업으로선 매출규모가 큰 편이다. 백담마을 전체 197가구의 세대주 모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주민들은 추석, 설 등 명절에 배당금 형식으로 20만∼30만원씩 받는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백담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다. 2012년에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만 80여명이고, 중고생까지 합치면 120명에 이르렀다. 어린이집에도 40명의 아이들이 북적거린다. 마을 회관에서는 수준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히 용대2리 지역주민은 청장년들도 많고 다른 지역 인구수보다 많다. 마을과 지역이 살아난 것이다. 백담마을이 살아나니 이웃마을도 살아나고, 인제군 북면이 살아나고, 인제군이 살아난다. 이렇게 백담마을이 살아난 것은 백담사에서 당시까지만 해도 어려웠던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사업권을 흔쾌히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백담사로 인해 백담마을 비롯한 지역의 마을들이 살아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모범사례라 할 만하다.(고명석, 설악불교와 지역포교, 대각사상연구원)

2) 이슬람 BAM 이야기

(1) 김중관, 이슬람 사상의 경제원리 및 규범체계 분석(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이윤추구는 계율에 따라서 도덕적으로 정당해야 함. 노동과 경제적 활동 참여는 무슬림의 의무(꾸란62:10). 자신이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생산하고, 자카(빈민구휼종교세) 사다까(헌금)를 통해 종교적 의무를 완성. 축적된 부를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서 낭비할 수 없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아야. 부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잉여재산은 계속 사업에 투자되어 순환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재분배 되는 사회보장제도를 공동체 안에서 확립함. 재산 증식은 긍정적이므로 상거래는 중시됨. 이 세상의 모든 자원은 신이 주인이며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인간은 신이 부여한 자원을 사용함.

(2) 손태우/김분태, 이슬람 기업의 윤리경영에 미치는 샤리아(이슬람법)에 관한 연구(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예언자 모하메드가 “신의 있고 정직하며 진실한 상인이 재림의 날에 순교자와 함께 승천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직한 상인은 지하드를 위해 투쟁하거나 목숨을 버린 순교자와 동일시한다. 무슬림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에 거짓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결함을 알리고, 제품 혹은 서비스의 판매촉진을 위해 성적 어필, 두려움 어필, 정서적 어필 혹은 거짓 진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3)기타(나무위키 인용)

(1) 통일교 통일그룹 - 일화(업력 52년차, 중견기업 , 사원수 390명, 매출액 1,625억), 선원건설, 신정개발, 세계일보, 워싱턴 타임즈, 용평리조트, 선학학원/청심학원(선문대학교, 청심국제중고등학교)

(2) 천부교 시온그룹(1957년 부천에 신앙촌 처음 건설, 기업과 생산 공장을 세워 신앙촌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3) 대순진리회 - 대진대학교, 대진고, 대진여고, 분당대진고, 대진디자인고, 일산대진고, 대진전자통신고.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4)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삼육학원, 삼육식품, 삼육서울병원, 시조사

(5) 하늘궁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의 단체. 학술연구단체, 정당의 모습을 띄지만 사실상 기업형으로 운영.

(6) 옴진리교 계열: 옴진리교가 일본 경시청에 의해 강제 해산되며 전부 폐업. 마하포샤(マハーポーシャ): 조립 PC 판매 회사 / 맛있고 저렴한 집(うまかろう安かろう亭): 라멘, 돈가스의 식당 체인 / 아라한(阿羅漢): 오코노미야키 배달 전문점 / 옴의 도시락 가게(オウムのお弁当屋さん): 도시락 전문점 / 옴의 스낵 가게(オウムのスナック屋さん): 스낵 전문점 / 우마캇쨩(うまかっちゃん): 카페 / 운명의 때(運命の時): 카레 전문점.

(7) 기독교복음침례회(권신찬-유병언 구원파) - 세모(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업체). 다판다. 국제영상. 청해진해운(세월호 침몰 사고와 연관된 해운사이다. 2016년 폐업).

4. 현대기독교선교와 BAM

1) 현대 성도들 선교이야기 – 갤트로닉스(Galtronics). 이스라엘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안테나생 산업체로는 최고 3위권에 드는 비즈니스선교기업의 모델로 알려지고 있는 갤트로닉 회사는 켄 크로웰이라는 선교사 후보생이 1980년대 후반 이스라엘에 설립했다. 모토롤라 엔지니어 출신의 크로웰은 미 남침례회 소속 교인으로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파송, 안테나 기술을 살려 비즈니스선교를 희망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크로웰은 혼자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을 택했고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크로웰은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며 3대 목표를 세웠다. 첫째, 미복음지역에 회사를 설립할 것, 둘째, 고용을 창출하고 특허를 출원할 것, 셋째, 기업을 통해 이스라엘이 축복받게 할 것과 같은 목표들이었다. 12년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꾸준히 경영활동에 매진했다. 선교가 목적임이 알려지자 유대인들과 노조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자신만의 기술을 꾸준히 쌓고자 노력한 결과 매출액 6500만 달러의 대규모 회사로 발돋움 하였다. 지금은 3개국 4개 회사, 약 1000여 명의 회사로 성장했다. 이 회사의 선교적 열매는 유대인 선교가 이 회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들을 통해 300명 수준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 교회의 목회도 회사 간부 중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기업과 경제발전 센터' 대표 샤론 스와는 "3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도 이스라엘에서 선교의 열매를 거두기 어려우나 이 회사는 기업운영과 제자양육에 모두 성공한 경우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회사가 성공한 비결을 말씀에 입각한 의로운 경영은 성공한다는 믿음과 전문기술, 경영마인드 구비, 끈기 있는 도전이라고 분석했다.(김지훈, 선교기업의 정의와 역할)

2) 현대 선교의 도전들

(1) Dave Kahle 저서 '비즈니스에 관한 좋은 책' - 기독교 사업을 막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두 가지 문화적 패러다임으로 첫째, 사업은 단지 돈을 버는 세속적인 것이라는 생각, 둘째, 사업이 실제로는 제도적 성직자에게 종속되는 2급 직업이라는 문화를 지적하고 있다.

(2)많은 사회학자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런 거대한 흐름에 대해 감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첫째, 거의 모든 일들이 비즈니스화이다. 일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다. 일을 통한 인간관계는 광범위하다. 이런 비즈니스의 일반화로 인해서 우리는 민족과 문화와 지역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상식적이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일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는 우리들이 하나님나라의 통치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복음을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둘째, 디아스포라(Diaspora)이다. 세계화와 함께 전에 없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들이 뒤섞이고 있다. 국가들의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는 민족들 간의갈등 등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타 문화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단기적으로 난민으로서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났다. 또한 비즈니스의 일상화로 인해서 타 지역을 방문하여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인 방문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세계는 디아스포라의 세계가 되었다. 세계화의 두 가지 결과인 비즈니스의 보편화와 디아스포라가 선교와 만날 때, BAM가 형성된 것이다. 세계화는 모든 기독교의 마지막 사명인 선교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본다(서혜덕).

3) BAM은 틈새시장인가 불루오션인가 아니면 재발견된 주류(main stream)인가?

모든 기독교인들은 선교사적 삶을 살아야 한다. 결국 선교사와 비선교사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기독교인이 선교하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세계화의 상황에서의 앞으로의 선교 과제는 우주적 교회의 자원이 총동원되는 싸움이다. 전에도 지역 교회나 선교단체가 선교사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은 교파나 교단 그리고 민족적 지역적 차이로 인해서 그 동역의 범위가 제한되었다. 이제는 BAM을 통해 더 큰 규모의 동역이 가능한 시대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런 동역이 필요하다. 디아스포라와 비즈니스라는 큰 변화를 통해서 선교에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는 BAM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선교의 흐름에 편승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의 흐름들을 잘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BAM을 그 흐름 가운데 같이 진입 시키는 것이 미래 한국교회 BAM의 과제일 것이다(서혜덕).